

MC: 매주 월요일 아침 청취자를 찾아가는 새로운 플러스코너 의정중계탑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인천광역시의회 최용덕교육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제7대 민선 인천시의회가 출범한 후에 첫 임시회도 마쳤습니다. 의장단 선출과 함께 원구성도 마치고 각 상임위 별루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로 위원장들을 모시고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상임위 중 교육위원회입니다. 최용덕 교육위원장 전화 연결 되어있죠.

의원: 네. 그렇습니다.

MC: 최용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의원: 네. 안녕하세요

MC: 우선 재선에 이어서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원: 먼저 교육위원회 위원장 최용덕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인천교육의 수요 정책과 현안, 이런 상황에 관해서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가족의 의견 및 지역 현안을 청취해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서 43만 인천 교육가족을 비롯한 300만 인천 시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C: 지난 6.4지방선거, 세월호 참사도 있고 해서 인천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고전할 것 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누리당이 압승 했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

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의원: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정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구요. 그리고 아직 까지 찾지 못한 십여명의 실종자가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정권 심판 운동을 내세웠으나, 이번 참사는 여야를 떠나 온 국민이 비통하게 만드는 국가적 비극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심판문이란 말은 좀 어불성설 이였구요.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다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안정속에 번영을 바라는 지지층 유권자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MC: 그게 새누리당에 압승 결과 요인이였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의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MC: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7대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어떤 원칙을 갖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의원: 교육위원 일몰제로 인해서 일반위원들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지 않습니까?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경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위원들로 이번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구요. 우리 교육위원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먼저 소통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언제나 의견을 제시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열린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MC: 새누리당에서는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교육감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진보교육감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의원: 네. 그렇습니다.

MC: 상당부분 정책적인 부분에서 혼선 또는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청연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책적 견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의원: 일방적으로 교육감 정책에 대해서 견제하고자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시민이 희망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청연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인천교육 방향이 제대로 정립되고, 과정이나 절차 그리고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MC: 인천시 이청연교육감에 혁신 학교 육성,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 정책으로 제시가 됐는데요, 이청연교육감이 선거에서 내놓은 교육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의원: 혁신학교는 공교육이 획일적이고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해 보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공감하죠.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수립 없이 추진할 경우에 많은 혼란과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서 이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견제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MC: 그렇군요. 이청연교육감이 내세운 정책 중에 최근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제를 통해서 뽑구요. 감사관도 개방형직으로 공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의원: 교육장이나 감사관 자리는 교육감의 원칙이나 생각만 가지고는 된다고 보지는 않구요. 인천의 중체적인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 합니다. 임명제가 되든 공모제가 되든 임용 방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받아야 인정받고,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 합니다.

MC: 그렇군요. 인천시 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포스코 교육재단 이렇게 지원 협약을 맺고 송도국제도시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이죠. 포스코 자사고 40억원을 인천시 교육청이 당초에는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청연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이를 취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 놓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 이 문제는 교육감만의 의지 가지고 취소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구요. 교육재정의 어려움이나 그리고 자사고 교재,교구 구입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은 일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포스코 자사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데, 개교는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에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겠습니다.

MC: 그렇다면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인천시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인천교육의 가장 관심사인 학력향상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나 이청연교육감의 다소 차이는 있어도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저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가는 교육위원회,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정말 여러분의 대변인이 되는 교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최용덕위원장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C: 고맙습니다. 새로운 뉴스플러스 의정중계탑 오늘 인천시의회
최용덕 교육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